

경인지역 무재해를 만들어 가는 곳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경인지회



경인지회는 올해 1월 2일 설립된 경인지역 건설안전의 보루이다. 신설 지회이긴 하나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작은 조직이 갖는 뛰어난 의사결정력과, 정보교환, 순발력 등을 강점으로 경인지역 건설안전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경 기도 하남시 덕풍동 중심가에 위치한 경인지회는 경 기도 및 인천광역시 사업권역으로 하고 있는 본 협회의 지회이다. 경인지회가 자랑하는 것은 8명이 근무하는 작은 조직의 신생지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설립과 동시에 대규모 현장의 안전컨설팅 수주 및 지도 실적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완벽함을 추구해 우리협회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경인지회 김만장 지회장이 밝히는 경인지회 운영목표는 지도현장 무재해, 즉, 안전으로 인명존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운영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안전교육 활성화에 경인지회운영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간 기억에 남는 일로 지회 설립 후 최초의 업무수행 때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업주와 심한 다툼을 벌인 일도 있었다는 그는, 업무추진시 완벽해질 때까지 절대 만족하지 않는 스타일 덕분에 '투사'라는 닉네임도 갖게 됐다고 멋쩍어 한다. 국내 대부분 지역이 대동소이하겠지만, 경인지역의 특징인 지역의 광범위함과 다양한 건설공사 등의 이유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 하나의 작은 희생으로 좀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수만 있다면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경인지회 운영의 소신을 밝힌다.

김만장 지회장의 지휘로 알찬 실력을 갖춘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경인지역 무재해는 마치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듯 경인지역 건설 사업장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바람 나는 직장, 정겨운 동료애

하남 지회원들은 사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업무의 성격상 서로 다른 현장에서 각자의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 사무실서 만나는 날이면 서로의 현장에서 발생된 상황에 대한 애로사항과 해결점을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는 등 작은 조직에서 더욱 돋보이는 장점들로만 가득 찬 한가족같은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는 지회이다.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로 경인지역은 물론 모든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최고의 지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우리협회 모든 임직원 및 회원들을 대신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김만장 지회장
보기보다 부드러운 스타일로 감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덕장.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이상철 부장
건설안전 분야를 천직으로 여기고 있는 건설안전 기술의 교과서.



이장군 차장
결코 서둘지 않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묵묵한 실천자. 내 사전에 실수란 없다!



신성준 차장
입사한 지 조금(?)오래 되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신입사원 같은 남자. 안전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고집이 있고 싶은 안전맨!



송동근 과장
무릇 모든 일은 마음의 문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방애의지국의 대표.



최상기 과장
할 땀 할 줄 아는 카리스마와 옆집 아저씨 같은 넉넉함, 부드러움을 겸비하고 있다.



정용수 기사
빠어난 용모만큼이나 완벽한 일처리로 사회 초년생티를 절대 보이려 하지 않는 신입 1년차.



유혜남 사원
미모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평범한 여사원임을 거부하는 다재다능한 미스 해결사.